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식당이 최근 유명 외식 브랜드와의 협업을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원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메뉴를 제공해 직원들에게 활력을 전하기 위해서다. 우리 병원은 이번 협업을 통해 연말까지 이색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은 2월 26일 서관 직원식당에서 '더 이탈리아 클럽' 김호윤 셰프(왼쪽 첫 번째)가 직원들에게 배식하고 있는 모습.

지나호 정답



제766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문화생활정보 -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기'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내과간호2팀 임하운 대리가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3월 15일(일)
 발표 제770호(2026년 4월 1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_____ 소속: _____
 전화번호: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김수연(암병원간호2팀)

피톤치드 룸&패브릭스프레이
 임준분(외과간호1팀)
 임현지(암병원간호1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윤인하(방사선중앙팀)
 조세진(수술간호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민숙(산부인과)
 김보경(중앙공급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심은선(중환자간호팀)
 이성미(소화기내시경팀)

이수현(통합돌봄지원팀)
 이은별(방사선중앙팀)
 한지민(진단검사의학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68 2026. 3. 1



“언제 어디서나 이송 환자 안전 지킵니다”

우리 병원은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여러 공간을 오가는 중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MTT(모니터링이송팀, Monitoring & Transport Team)를 운영하고 있다. 이송 환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1년 동안 원내의 이송모니터링 2만 3,500여 건을 시행하며 단 한 건의 환자 안전 사례 발생 없이 고위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사진은 2월 6일 MTT 의료진이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을 활용해 원내 이송 환자의 이동 경로와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중환자간호팀 오지원 주임, 호흡기내과 안지환 부교수(MTT팀장), 중환자간호팀 노윤희 과장. (관련기사 5면)

우리 병원은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여러 공간을 오가는 중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MTT(모니터링이송팀, Monitoring & Transport Team)를 운영하고 있다. 이송 환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1년 동안 원내의 이송모니터링 2만 3,500여 건을 시행하며 단 한 건의 환자 안전 사례 발생 없이 고위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사진은 2월 6일 MTT 의료진이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을 활용해 원내 이송 환자의 이동 경로와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중환자간호팀 오지원 주임, 호흡기내과 안지환 부교수(MTT팀장), 중환자간호팀 노윤희 과장. (관련기사 5면)

02 NEWS 3차원 심장초음파로 심방중격결손 정확 진단

10 바이오 인사이트 ADC, 암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06 AMC 리얼스토리 질병이 지나간 자리에

12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20년 만의 연락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3차원 심장초음파로 심방중격결손 정확 진단



송종민 교수

심방중격결손은 심장의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 벽에 구멍이 있어 혈액이 우심방으로 새는 선천성 심장기형이다. 카테터를 삽입해 심방 사이 구멍에 폐쇄 기구를 고정해 결손을 막는 경피적 폐쇄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심방의 구멍 크기에 맞는 폐쇄 기구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선택하는 표준화된 국제적 지침이 없는 상황이었다.

심장내과 송종민 교수팀이 심방중격결손 경피적 폐쇄술을 시행하기 전 3차원 경식도 심장초음파를 이용해 심방 구멍의 크기와 모양을 정밀하게 측정해 뒤 폐쇄 기구를 선정하면 시술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3차원 경식도 심장초음파는 초음파가 장착된 내시경을 식도로 삽입해 심장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정밀 관찰하는 검사로, 다양한 각도에서 심장 내부의 구조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3차원 심장초음파를 이용한 심방중격결손 경피적 폐

쇄술의 결과를 입증한 최대 규모의 연구인 만큼 폐쇄 기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2016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리 병원에서 3차원 경식도 심장초음파를 활용해 시술 전 폐쇄 기구 크기를 미리 결정해 뒤 경피적 폐쇄술을 받은 성인 심방중격결손 환자 748명의 시술 결과를 평균 1.6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시술 성공률은 99.7%였으며 추적 기간 동안 심장을 원인으로 한 사망은 한 건도 없었다. 기구의 기능 이상으로 실패한 2건을 제외하고 폐쇄 기구 크기 재선택이 필요한 경우와 수술로 전환된 경우 각각 1건에 그쳤다. 3D 초음파 영상을 활용해 시술 전 심방 구멍의 최대 및 최소 직경을 정확하게 측정해 재수술 또는 시술 오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평균 시술 시간은 18분으로, 기존 풍선 크기 측정법의 평균 시술 시간인 45~66분에 비해 절반 이상 단축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 심혈관영상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생존을 낮춘 전이암, 면역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



진준오 교수



김소정 연구원

암 치료법의 발전으로 완치율은 높아졌지만 다른 장기로 퍼진 전이암은 형질 변화가 잦아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도 낮다. 이러한 한계로 종양의 이질성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맞춤형으로 전

이암을 표적하는 새로운 치료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미생물학교실 진준오 교수와 김소정 연구원은 수술로 제거한 암 조직에서 생성한 세포사멸체에 면역증강제를 삽입해 잔존 전이암을 치료하는 면역원성 세포사멸체(iABs)를 최근 개발했다. 연구팀은 전이암이나 잔존 암 환자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기 위해 전이성이 높은 유방암, 대장암, 흑색종을 각각 이식해 한

개체에 두 개의 종양을 지닌 생쥐 모델을 구축했다. 수술적으로 한쪽 종양을 제거한 뒤 절제된 종양에서 추출한 암세포사멸체에 면역증강제를 삽입해 iABs를 제작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반대편 종양에 주사해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지상세포로부터 시작되는 항원 특이적 T 세포 활성화가 유도돼 남아있던 종양을 선택적으로 공격했고, 모든 전이암 모델에서 종양 크기 감소와 성장 억제가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완전 관해도 확인됐으며 간 독성이나 전신 염증 등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진준오 교수는 “환자 개별 종양을 치료 자원으로 활용한 맞춤형 면역치료제 개발이 전이암 면역치료 발전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 연구 분야 국제 학술지 「캔서 커뮤니케이션스」에 최근 게재됐다.

눈 뒤 종양 ‘안와 우연종’ 치료 가이드라인 첫 제시



사호석 교수

눈 뒤 공간인 안와에서 예상치 못하게 종양이 발견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와 우연종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 안과 사호석 교수팀이 안와 우연종의 특징과 치료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세계 처음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5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우리 병원에서 안와 우연종이 발견된 환자 43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종양 종류는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뭉쳐 생긴 해면정맥기형(55.8%)과 신경을 감싸는 신경집에 생긴 신경집종(27.9%) 등 양성 종양이 대부분이었다. 해면정맥기형과 신경집종은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통증이 거의 없다. 하지만 드물게 림프종처럼 안와암이 발견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경과를 분석했을 때는 눈 깊숙한 후방에 종양이 위치하

고 증상이 없는 환자들은 수술 없이 정기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96.6%에서 종양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반면 눈 전방에 종양이 위치하거나 안구돌출, 복시 등의 증상이 뚜렷한 환자들은 수술적 제거가 권장됐다. 특히 앞쪽 종양은 수술 접근성이 좋고 합병증 위험이 낮아 안전하게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와 우연종이 발견된 가장 흔한 계기는 건강검진(48.8%)이었으며 두통(27.9%)이나 어지럼증(14.0%)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다. 사호석 교수는 “안와 우연종은 발견 시 환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양성이고 진행도 느리므로, 무조건 수술로 제거하기보다는 영상의학적으로 종양을 감별하고 위치와 증상에 따라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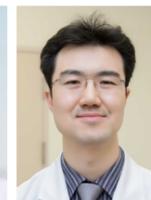
내시경 초음파 조직검사로 림프종 진단 정확도 높여



박도현 교수



허건 조교수



윤덕현 교수



조형우 부교수

면역세포인 림프구가 종양으로 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림프종은 세부 아형에 따라 치료법과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을 떼어내는 절제생검이 주로 시행돼 왔지만 복강 내 깊은 곳에 위치한 경우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내시경 초음파 조직검사는 수술보다 침습도가 낮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조직검사 바늘과 내시경 초음파 기술 발전으로 깊은 곳에 위치한 병변에서도 보존 상태가 좋은 조직을 채취할 수 있어 면역조직화학염색과 아형 분류까지 가능해

졌다. 그러나 내시경 초음파 조직검사가 림프종에서도 세부 아형 구분 등 치료 방향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다. 소화기내과 박도현 교수, 허건 조교수, 종양내과 윤덕현 교수, 조형우 부교수 연구팀은 2016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복강 내 림프종이 의심되거나 재발이 의심돼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조직검사를 받은 환자 87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98.9%에서 수술 없이 림프절 조직을 확보했으며 85%에서는 아형 분류를 포함해 치료 방향 결정이 가능했다. 재발 의심 환자 중 61%는 세부 아형을 확인해 즉시 항암치료를 시작했고 26.8%는 림프종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밝혀져 불필요한 항암치료를 피할 수 있었다. 부작용은 환자의 3.4%에서만 경미하게 나타났으며 약 복용 없이도 회복했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소화기내시경」 최신호에 게재됐다.

아산재단, 498명에게 장학금 39억 원 전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뒷줄 왼쪽 일곱 번째)과 아산재단 이사, 장학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학생' 45명, 군인·경찰·소방·해양 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 산업체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이 선발됐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과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에게 연 600만 원, MIU 자녀 장학생과 지역산학협력 장학생에게는 연 400만 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산재단은 2월 25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학원생 88명, 대학생 410명 등 총 498명에게 장학금 39억 4,000만 원을 전달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78명(국내 47명, 해외 31명)에게는 매년 2,000~4,0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10명에게는 매년 1,000만 원을 졸업 시까지 지원한다. 대학교 장학생에는 의생명과학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 35명, '북한이탈청소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장학생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하며 도전을 이어나가 혁신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아산재단은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하면서 꿈을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7,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949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로봇수술 심포지엄



로봇수술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6회 로봇수술 심포지엄이 2월 21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 대표 로봇수술센터의 임상 경험 공유'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간 절제 라이브 수술 ▲로봇수술 임상 적용과 최신 치료 전략 ▲다학제 기반 수술 경험 ▲다양한 로봇장비 도입과 간호사의 역할 ▲로봇수술 마취 및 환자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용식 로봇수술센터소장은 "우리 병원은 다양한 로봇수술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이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로봇수술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이송모니터링으로 진료연속성 강화



MTT(모니터링이송팀) 의료진이 간이식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검사실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장기이식 환자, 기계환기 적용 환자 등 고위험 중증 환자들은 이동 과정에서 약물 주입 중단, 산소 공급 불안정, 장비 분리나 체위 변화 등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숙련된 의료진의 동행과 즉각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다. 우리 병원은 원내외 이송 중인 중증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MTT(모니터링이송팀)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 동반이 필요한 19세 이상 병동 및 응급실 재원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며, 검사실·치료부서·외래 환자에게 이상징후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각 대응하고 있다. MTT는 환자 이송 호출을 받으면 전산으로 환자 상태를 미리

파악한 뒤 현장에서 기도와 호흡, 혈액학적 안정성, 투여 약물과 의료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사정하고, 필요 시 사전안정화 중재를 시행한다. 이송 중에도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 의식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검사나 시술이 문제없이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저위험군 환자에게는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을 적용해 이동 경로와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한다.

또한 진정제를 투여한 외래 검사 환자, 중환자 간호가 필요한 병동 입원 환자, 낙상 고위험 및 공격성 섬망 환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원외 이송 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험 약물 및 이동식 인공호흡기 관리, 흡인 등 필요한 중재를 수행하며 진료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MTT는 최근 1년 동안 고위험 환자 원내 이송모니터링 2만 3,000여 건, 원외 이송모니터링 500여 건을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외래 진정 검사 모니터링은 1,200여 건 시행했으며 즉각적인 상태 변화 중재를 통해 검사 성공률 97.9%를 기록했다. 안지환 MTT팀장은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은 모든 진료 공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환자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치료받고 회복하도록 전문적인 이송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불우환자 지원		이사회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고효진	2,000,000	이지희	100,000
서울아산맥외과의원	1,000,000	김은희	1,000,000	이창규	500,000
성준영	1,000,000	김현정	2,000,000	장세진	10,000,000
아산온유외과의원	1,000,000	브릴랑	390,000		
와이제이엔터 주식회사	100,000,000	서지우	288,761		
이두한	200,000	신영우	1,000,000		
이주영	5,000,000	신종석	1,000,000		
정명재	5,000,000	양태운	100,000		
정영조	5,000,000	이제아	500,000		
정주아	5,000,000	정장현	50,000,000		
(주)생각하는늑대	100,000,000	(주)행복한씨엠오	5,000,000		
주식회사 옥타곤벤처파트너스	100,000,000				
(주)에스엠아이이엔지	100,000,000				
최성길	200,000,000				
한종범	1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김순희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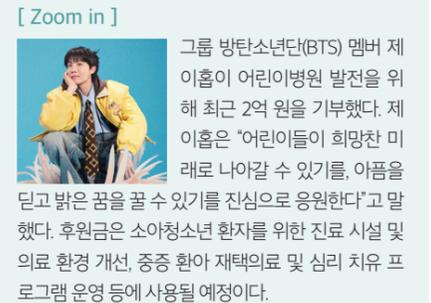


그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어린이병원 발전을 위해 최근 2억 원을 기부했다. 제이홉은 "어린이들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아픔을 딛고 밝은 꿈을 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 환경 개선, 중증 환자 재택의료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2026년 2월 14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질병이 지나간 자리에

취관 내 유두상 종양을 진단받은 이윤형(63) 씨에게 몸의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위기가 차례로 찾아왔다. 머릿속의 좁은 반경에서 그려온 여생은 무수한 변수로 인해 깨지고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삶의 가능성은 가장 커졌다. 질병 너머의 삶이 그를 기다렸고 회복하며 얻은 자신감은 다시 달릴 힘이 됐다.

자신만만했던 삶이 막을 내렸다

2017년, 윤형 씨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잠에서 깬다. 땀방울이 온몸에서 말 그대로 뿜어 나왔다. 뭐라 설명하기 힘든 공포와 불안이 몰려 왔다. 난생처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도 가봤다. 특별한 진단 없이 통증이 사그라지면서 잠깐의 해프닝으로 남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통증과 공포가 찾아왔다. 이번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1부터 10까지 통증 정도를 묻는 의료진의 질문에 “10이요, 10”을 다급히 외쳤다. 이때 로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취관 내 유두상 종양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취관 안에서 점액을 만드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유두 형태의 종양을 만드는 질환이었다. 취관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간담도취외과 송기병 교수는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지!’ 불안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 내렸다. 혹시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거지 뭐”라며 큰소리쳤다. 수술 직전까지 흡연을 하다가 송 교수에게 들켜 이러면 수술해 줄 수 없다는 나무람을 듣기도 했다.

보름 정도 입원해 염증을 없앤 뒤 체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다. 수술을 잘 마치고 병실로 올라오자마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출혈이 이어졌다. 병동 관찰방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평생 자신이 알던 몸이 아닌 듯했다. 이후로도 두유 하나 다 마시지 못할 만큼 입맛은 푹 떨어졌고 아무런 의욕이 느껴지지 않았다. 체중은 금세 20kg 가량 빠졌다. 2018년 4월의 일이었다.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 달 넘게 병상에 누워있으니 거동조차 힘들었다. 엉덩이 근육만 빠져도 불편한 컨디션이 이어졌다. 걸음 하나 제 맘대로 옮기지 못하는 데서 큰 충격을 받았다. 잃어본 후에야 평생 생각해본 적 없는 몸의 기능들을 알 수 있었다. 수술 목표는 이미 완수했으니 일상으로의 회복은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먹방 프로그램을 찾아보며 꾸역꾸역 끼니를 챙겼다. 식단은 건강한 것들로만 채웠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은 단번에 끊었다. 첫날은 10걸음, 다음 날은 50걸음, 그리고 100걸음... 매일 조금씩 늘려 걸었다.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 체력은 조금씩 돌아왔고 마음에도 생기가 돌았다. 그렇지만 건강에 집중하는 사이에 통장 잔고는 바닥나 있었다. 호된 계산서를 받아든 기분이었다.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원을 훌쩍 넘긴 나이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택시 회사에 문을 두드렸다. 30개월 무사고면 개인택시도 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눈물과 희망을 안고 달리는 택시

“서울아산병원이요.” 택시에 탄 손님의 목적지가 익숙하면서도 반가웠다. 다만 유난히 낮은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백미러로 본 손님의 눈가에는 역시나 눈물이 고여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이 취관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손님은 고인 눈물을 터뜨렸다. 울 곳이 필요한 사



송기병 교수와
진료실에서 함께

“서울아산병원에 올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곳을 떠날 때는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 삶을 다시 산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람에게 택시 안은 고요한 모래사막이 되어 주었다. 흠뻑 적셔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손님, 저 어때요? 건강해 보이죠? 저도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택사에서 실컷 우시고 병원에 들어가면 의료진만 믿어보세요.” 서울아산병원이 보이는 길목에 다다르자 윤형 씨는 예전에 수술받았던 부위가 옥신거렸다. 신기하게도 몸의 기억이란 게 있었다. 병원을 향하는 손님들에게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건 아팠던 기억과 회복의 안도가 몸에 새겨졌기 때문인 듯했다.

어떤 손님은 취관암 2기라며 입원하러 가는 길에 만났다. 다른 부위면 몰라도 취관이나 담도 이야기가 나오면 윤형 씨는 서울아산병원 송기병 교수님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냈다. “나보고 서울아산병원 신봉자냐고 놀려도 어찌겠어요. 송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신나게 운전하고 있는데~” 통증과 치료 과정, 병원에 관한 경험담을 나누는 것만으로 환자나 보호자들에겐

위로가 되고 있었다. 좋은 마음을 먹어서인지, 하늘이 도운 덕분인지 윤형 씨는 택시 회사 내에서 늘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운수업이 적성에 잘 맞는다는 것도 알게 됐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까탈스럽거나 술 취한 승객을 만나도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다. 목표한 30개월 하루가 지나 지난해 11월, 윤형 씨는 꿈에 그리던 개인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오늘도 윤형 씨는 새벽부터 여러 약속과 사연, 표정을 실어 날랐다. 하루해가 저무는 시간, 서울아산병원에 손님을 내려주고 천호대교를 건너며 환상적인 일몰에 시선을 빼앗겼다. 과거 자신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손님들의 눈으로 보기도 했다. 아프거나 서럽고, 혹은 기쁜 날에 마주했던 이곳 풍경이 모두 겹쳐졌다. ‘행운과 불운을 자로 잰 듯 가늠할 수 있을까?’ 윤형 씨는 그 답을 알 것만 같았다. 돌아보면 하루도 버릴 날이 없었다고.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을 짓누를 때 기꺼이 희망과 위로의 동행자가 되어준 서울아산병원.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국내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전향적 코호트 연구



신생아과 정지윤 조교수

신생아과 정지윤 조교수는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전국 전향적 코호트의 단기 및 1년 임상 예후 중간 분석'을 주제로 최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신생아과 이병섭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전국 6개 주요 대학병원이 협력해 구축한 전향적 코호트(K-CDH)를 기반으로 수행됐다. 국내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자의 치료 성과와 1년 예후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 CDH)은 태아 발달 과정에서 횡격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복부 장기가 흉강으로 올라오고, 그로 인해 폐의 성장이 저해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출생 직후부터 고도의 호흡·순환기 집중치료가 필요하며 산전 진단과 분만 계획, 수술, 퇴원 후 장기 추적 관찰에 걸쳐 여러 진료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전체 치료 성과와 장기 예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다기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내 최대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우리 병원을 중심으로 협력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전 평가부터 수술·집중치료·퇴원 후 관리까지 치료 과정을 표준화해 근거 기반 치료 전략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본 연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K-CDH 전향적 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생존율, 주요 합병증, 생후 12개월 성장·발달 지표를 분석한 중간 결과다. 분만의 경우 제왕절개 비율이 92%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출생 직후 적극적 소생술과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분만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반 기형은 28%로 기존 문헌과 유사했고, 환자의 약 절반에서 중등도 이상의 폐동맥 고혈압이 확인됐다. 퇴원 시 생존율은 86.2%로 세계 평균(70~80%)을 상회했다.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중증 환자에서도 절반 이상이 생존해 국내 치료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후 12개월 추적 관찰률은 96%였으며 생존 아동의 약 12%에서 성장 지연이 관찰됐다. 또한 단기 추적 시점에 20~25%의 환자에서 인지 및 운동 발달 지연이 확인돼, 생존 이후 삶의 질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추적 관리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향후 코호트 규모를 확대하고, 추적 기간을 학령기 이후까지 연장해 장기 예후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초기 임상 지표를 기반으로 예후 예측 모델을 개발해 환자별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팀은 환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질한 정보 및 가족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 코호트 홈페이지(k-cdh.org)를 운영하며 희귀 질환의 치료 여정 속에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과간호2팀 154병동 / 중환자간호팀 NRICU

'욕창 Zero'를 위한 완벽한 바통터치

NRICU에서 154병동으로 전동된 환자에게 욕창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전동 전에는 실금관련피부염(AD)이나 단순 피부병변으로 인식되던 부위가 전동 후 욕창으로 판정되면서 부서 간에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환자와 보호자는 반복되는 피부 처치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고, 의료진 역시 판단 기준이 달라 혼란이 이어졌다. "어떻게 해야 환자의 건강한 피부 통합성을 지키며 안전하게 전동할 수 있을까?"

2025년 4월 NRICU와 154병동의 첫 협의회는 부서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긴장 속에 시작됐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달라졌다. 두 부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모호했던 피부병변과 욕창의 관리 기준을 재정립했다. 사진 자료로 욕창 단계를 평가하고 관리 방법을 퀴즈 형식으로 토의하며 판단 기준을 맞춰 갔다.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증명하다

협업의 핵심은 '표준화'와 '공유'였다. 전동 전 환자 상태 재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2인 이상이 피부 상태를 공동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모든 피부 병변은 상처장루실금 전문 간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전동 당일 사진을 촬영해 통합욕창기록지에 업로드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병변의 위치·상태·관리법을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정기 협의회와 교육, 실무자 간 소통이 활발해지자 전동 직후 욕창 발견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 정확한 사정과 인수인계로 환자의 회복이 빨라졌고 전동 과정의 안전성과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

환자를 위한 하나의 팀이 되다

새로운 기록 방식과 사진 촬영이 초기에는 업무 부담으로 여겨졌지만 환자 안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변화는 긍정적이고 빠르게 정착됐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자 간호사들의 판단은 일관됐고 전동에 대한 불안도 줄었다. 이번 협업은 부서 간 경계를 넘어 '함께하면 더 안전한 간호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남겼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동 과정 전반에 연속성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로 다른 욕창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주기적인 워크숍과 협의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154병동 정소는 주임, 유혜민 유닛 매니저, 천현주 과장, NRICU 김경란 유닛 매니저, 이나현 주임, 손정숙 과장.

“과거에는 욕창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부터 따졌지만 이제는 '어디에서 놓쳤는지', '어떻게 예방할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사진을 보며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업무 환경을 이해하게 됐고 실무자 간 신뢰가 단단해진 것이 이번 협업 활동의 가장 큰 수확입니다.”

※ 병원보에서는 '협업의 가치' 코너를 통해 다양한 직종, 부서 간 협업 사례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협업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화하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암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응합의학과 김인기 교수

766호 '정밀 타격 뒤에 숨은 난제들' 편에 이어서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제조 초기에는 항체 표면에 약물을 무작위로 붙이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약물 탑재량과 링커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임상시험에서 많은 실패 사례들이 생겼죠. 근본적인 해결책의 두 가지 핵심은 DAR(Drug-Antibody Ratio, 하나의 항체에 결합된 약물의 개수)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링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암세포 내에서만 선택적으로 절단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 돌파구: 링커의 정밀 제어

돌파구는 부위-특이적 접합(Site-Specific Conjugation) 방식에서 나왔습니다. 이전의 무작위 결합과 달리 항체 단백질 사슬의 'C-말단'에 약물이 위치할 주소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C-A-A-X C: 시스테인(cysteine), A: 지방족 아미노산(aliphatic amino acid), X: 다양한 아미노산이라는 특정 아미노산 배열을 추가해 약물이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결합하도록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모든 항체에 동일한 개수의 약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ADC가 동일한 구조와 분자량을 갖게 되면서 정확한 투약 효과

과 예측과 품질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링커 기술도 혁신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타-글루쿠로니다(β -Glucuronide)입니다. 이 링커는 정상세포의 중성 환경(pH 7.4)에서는 벤조산아미드(benzoic amide) 결합 방식으로 7일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암세포에 과발현되는 베타-글루쿠로니다제(β -Glucuronidase)라는 효소와 산성 환경을 만나면 절단됩니다. 마치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야만 열리는 자물쇠와 같죠. 혈액을 순환하는 동안에는 꿈쩍도 않다가 암세포 내부 리소좀(pH 4~5)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정상세포에서는 약물 방출이 최소화되고 종양 내에서만 선택적으로 약물이 방출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off-target'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도약

흥미롭게도 이러한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ADC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World ADC Awards'에서의 수상입니다. ADC 구성요소의 혁신성과 임상적 검증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이 시상에서 국내 기업이 최우수 ADC 플랫폼 기술상(Best ADC Platform Technology)을 2021년, 2023년, 2024년 세 차례나 수상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준우승을 차지했죠. 글로벌 제약업체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ADC 플랫폼을 존슨앤드존슨(J&J)에 2조 2,400억 원 규모로 기술이전했고 일본 오노제약과도 대규모 협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12월 안센과 기술이전 계약 후 계약금 1,300억 원을 수령하며 지난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여러 ADC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이 미국과 호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임상 데이터의 우수성입니다. DAR=2로 균일하게 제조된 ADC는 기존 경쟁 ADC 대비 치료지수(Therapeutic Index, 안전용량과 효과용량의 비율)가 4~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부작용은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엔허투(Enhertu)에서 보고된 간질성 폐질환이나 안독성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HER2 중·저발현 암에서도 46%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HER2 고발현 암에서만 효과가 있던 것에 비하면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입니다.

진화하는 ADC의 미래

ADC 기술은 지금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ADC는 다양한 페이로드를 활용하는 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의 약물을 동시에 탑재해 암세포가 한 약물에 내성을 보이더라도 또다른 약물로 공격하게 하는 '듀얼 페이로드' 방식은 효과와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입니다. 면역자극제를 페이로드로 사용해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대신 환자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공격을 유도하는 ADC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표적 면역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스테로이드로 불리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조절제)를 페이로드로 사용하는 ADC도 면역매개 염증질환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표적 세포에 항염증 작용을 집중시켜 전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방사성 원소를 활용한 정밀 방사선 치료, RNA나 PROTAC(Proteolysis-Targeting Chimera, 단백질 분해 유도 물질)과 같은 새로운 기전의 물질들도 페이로드 후보로 검토되고 있으며, 독성이 매우 강한 신규 화



합물들도 연구 대상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명확합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링커의 안정화와 새로운 페이로드 발굴이 계속돼야 합니다. 정밀한 DAR 제어 및 종양 선택적 링커 기술은 더욱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과학과 시장이 만나는 지점

ADC의 발전 과정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는 중개의학 연구개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임상 수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차별화된 핵심 기술 확보, 한정된 자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모두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성과 확산까지 여러 요소가 균형 있게 진행돼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갖춰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할 난제가 많습니다. 각 암종마다 최적의 항체-약물-링커 조합을 찾아야 하고, 약물 내성을 극복하는 한편 제조 비용을 낮춰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기술은 ADC가 향후 암 치료의 핵심 무기가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유도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암세포만 타격하는 항암제, 먼 미래 같던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바이오 연구의 최전선에서는 지금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이오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연구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현장의 연구자들이 쉽게 풀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년 만의 연락



외과간호2팀 봉설희 대리

지난해 4월 어느 날이었다. 업무를 준비하던 중 한 간호사가 쪽지 한 장을 건넸다. 쪽지에는 환자의 등록번호와 이름,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환자 보호자인데 너무 고마운 마음에 쪽 연락을 하고 싶다며 병동으로 전화를 주셨다는 말과 함께였다. 이브닝 근무를 하는 내내 그 환자의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혹시 20여 년 전 그분일까.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과 오래전 기억이 겹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용기를 내 쪽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했다. 보호자는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동안 잘 지냈는지, 기억은 나는지 연이어 안부를 물으셨다. 다행히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던 그 환자의 보호자가 맞았다. 반가운 마음에 약속을 잡고 며칠 뒤 만나기로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만난 보호자는 “여전히 그대로네요”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각자의 삶과 그때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갔다.

“다른 병원에서 간암 오진이 있어 서울아산병원으로 오기까지 많이 늦어졌어요. 간호사님들과 주치의이신 김강모 교수님도 정말 애써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두 달밖에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퇴직하고 이제 좀 재미있게 여행 다닐 수 있겠다 싶던 때였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답답한 말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때 간호사님이 저희에게 너무 잘 해주셔서 내내 기억에 남았어요. 장례식장에 와 주셨던 것도 정말 감사했고요.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병원에 다시 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잠시 말을 멈췄던 보호자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용기내 왔어요. 다행히 아직 근무 중이셨네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간호의 온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두려움과 상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답답함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은 의료진에게도 결코 쉽지 않다. 보호자는 여러 차례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오히려 나는 간호의 본질과 따뜻한함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 보호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20년 만의 연락은 나에게 간호사로서 지녀야 할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치료를 돕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까지가 우리의 역할임을, 건네는 말 한마디와 눈빛 하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이 만남을 통해 깨달았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코너에서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집중해야 충분한가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실수가 잦고, 대화 중 다른 생각에 빠져 흐름을 놓친다. 골치 아픈 일을 자꾸 미루게 된다.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며 “혹시 내가 ADHD는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안고 상담실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수가 용납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의료인에게 집중력 저하는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심리적 중압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ADHD는 주의력 저하, 과잉행동, 충동성을 핵심 특성으로 하는 신경발달질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진단율이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아동의 유병률은 약 5%, 성인은 2~3% 수준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됩니다. 진단율 증가에는 진단 기준 완화, 보험 적용 확대, 질환 인식 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감별 진단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주의력 저하와 산만함은 ADHD의 핵심 증상이지만 심한 스트레스, 번아웃, 수면 부족, 우울이나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멀티태스킹은 필수 역량처럼 요구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주의력은 본질적으로 한정된 자원입니다.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가 느려지듯,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자극이 지속될 때 처리 속도가 떨어지

는 것은 병리라기보다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 중요한 단서는 발병 시기와 증상의 일관성입니다. ADHD는 대개 아동기에 증상이 시작되어 가정, 학교, 직장 등 여러 환경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성인이 된 이후 증상이 시작되었거나 직장이나 학업 등 특정 상황에서의 기능 저하가 두드러진다면, ADHD 이전에 현재의 스트레스 수준이나 환경적 맥락을 먼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DHD는 단독 진단보다 공존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진단은 자가 체크리스트가 아닌 전문적인 면담과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ADHD를 확정하는 생물학적 검사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의 경계는 때로 모호합니다. 요한 하리는 저서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현대 사회의 디지털 환경과 과잉 자극이 개인의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침식하고 있으며, 이를 오로지 개인의 병리만으로 환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기에 앞서 내가 가진 주의력이라는 배터리가 방전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리학 이전에 회복과 조정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줄이고, 동시에 열어 둔 여러 개의 창과 조절하는 등 주의 자원을 계속 빼앗는 외부 자극을 줄여줍니다. 동시에 업무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구조화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도 주의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현재의 기능 수준을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 안명희 조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만난 세상

조혈모세포 기증, 10년 차 간호사의 새로운 이정표

암병원간호2팀 배진실 대리



2025년은 중앙내과 간호사로 근무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였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며 뒤늦은 사춘기처럼 성장통을 겪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11월, 나와 유전자형이 일치해 조혈모세포 기증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혈연 간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은 수만 분의 일이다. 십여 년 전 우연히 등록했던 기증 희망이 중앙내과 간호사로서 또 다른 방식으로 환자를 지킬 기회로 돌아온 듯했다.

기증을 위해서는 수일간 입원해 과립구집락촉진인자(G-CSF) 주사를 맞고, 혈관 상태에 따라 중심정맥관(쿠틀론 카테터)을 삽입해야 한다. 병동에서 수도 없이 보아온 과정이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겪는 경험은 완전히 달랐다. 입원 첫날 카테터 삽입과 G-CSF 투약이 끝나자 통증에 비교적 무딘 편인 나에게도 저녁부터 전신 통증이 밀려왔다. 최대한 통증을 참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다행히 담당 간호사의 따뜻하고 세심한 통증 중재 덕분에 편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동안 나를 스쳐 간 환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많은 환자

들이 통증을 묵묵히 참아내곤 했다. 어떤 환자는 지나온 치료 과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덩덤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항암과 수술까지 길고 힘든 치료 과정을 견뎌온 환자들의 통증은 내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것이다. 늘 최선을 다해 간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날만큼은 설명하기 어려운 미안함이 밀려왔다.

잠시 환자의 입장이 되어 마주했던 불안과 두려움을 환자들과 나누곤 한 다. 긴 의학적 설명보다 "얼마나 아프신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짧은 한마디가 더 깊은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기증은 나에게 '4,000번째 기증자'라는 과분한 수식어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는 앞서 3,999명의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까지 이어진 결과라 생각한다. 치료 여정을 함께 걷는 기회를 준 이름 모를 수혜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 경험이 다른 동료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 새로운 희망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한다.

굿바이 콩글리시

'허리를 삐끗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My back is broken'은 뼈가 부러졌다는 뜻이 되어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무리하게 스트레칭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는 'tweak'를 쓰자. 한편 '허리를 다쳤어요'는 "I hurt my back"이라고 한다.

허리를 삐끗하다

- ☹️ My back is broken.
- 😊 I tweaked my back.

Let's Talk

A Why are you walking like that? 왜 그렇게 걸어요?
 B I tweaked my back yesterday. 어제 허리를 삐끗했어요.

패션 아이템만큼 콩글리시가 많은 분야도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투맨', '후드티'는 영어권에서 통하지 않는다. 맨투맨은 'sweatshirt' 후드티는 'hoodie'라고 한다. 대학 캠퍼스에서 많이 보이는 '과잠'은 야구 점퍼 스타일이라 영어로는 'varsity jacket'이라 한다. 올바른 영어로 멋진 패션을 완성해 보자.

- 맨투맨 😊 Sweatshirt
- 후드티 😊 Hoodie
- 과잠 😊 (Department) Varsity Jacket



Let's Talk

A Is that your department varsity jacket? 그거 네 과잠이야?
 B Yes, it's so comfy. It's my favorite along with this sweatshirt. 응, 진짜 편해. 맨투맨과 함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지.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풍납동 사진관



우리는 아산 패밀리!

2015년 가을, 과장 승진자 아카데미 교육에서 나이도, 부서도, 직종도 다른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11년. 소소한 행복과 일상의 고민을 나누며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곁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습니다. 행복한 인생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어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 준 우리 병원,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래서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 심장병원간호팀 김윤선 차장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재활의학과 김다영 레지던트

가장 인상 깊었던 코너는 '문화생활정보 -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기'였습니다. 곧 돌을 맞은 딸아이와 봄나들이를 계획하던 차에 무척 유용한 내용이었네요. 배운 내용을 활용해 예쁜 가족사진 많이 남겨주세요!

심장병원간호팀 이선미 차장

'풍납동 사진관'에 소개된 재재팀 선생님들의 사진을 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환한 미소와 활기찬 모습이 마치 방금 만났던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하루 2만 보를 이동하면서도 늘 밝은 표정으로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팀 임소연 변호사

'다른 그림 찾기' 코너 정말 재미있어요! 지난달에는 결국 마지막 하나를 못 찾아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해서 너무 기뻐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한줄기 즐거움입니다!

연구중심병원육성사무국 강유진 사원

'마음건강노트'를 통해 '보여아웃'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답답함이 많이 해소됐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자극을 찾아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깨워보려 합니다.

외과간호팀 김영현 과장

'병원 밖에서 만난 세상'을 읽으며 봉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올해는 작은 봉사부터 실천해보려 합니다.